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경찰청장 “올해 20% 감축”...靑 경호 중단 청원 1만3천명 대학생진보연합 “내란 목적 살인 혐의 재수사해야” 고발장

경찰이 ‘광주학살의 장본인’으로 국민적 공분을 대상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전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두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한정 질서를 짓밟은 범죄자’라며 “이들에 대한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2700여명이 동의했다. <2018년 5월 18일자 7면>

이 청장은 “범죄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었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

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차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엔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는 현장 상황을 따라 사저를 탄력적으로 경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올해 1월 각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5·18대학생검문단은 최근 “광주 학살 진압의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고, 대법원은 유죄 근거로 1980년 5월 27일 ‘상무총정작전(광주 재진입 작전)’의 살상 행위만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군 헬기가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계엄사령부가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는 등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그림 같은 다시마 말리기 청명한 날씨를 보인 21일 완도군 금일도 다시마 건조장. 하늘에서 본 모습이 마치 붓으로 줄을 그어 놓은 듯 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5·18 재판 서울서 받겠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 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

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퍼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 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학살자 전두환에 분노” 기념비 가림막 방화 60대 입건

5·18 민주화 운동 38주년을 지난 18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축석고개 입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기념비를 덮은 가림막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포천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7시 4분께 소흘읍 이동교리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입구에 있는 ‘호국로’ 기념비를 덮은 하얀 천에 불을 붙인 혐의(재물손괴)로 장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 해질 19:34 | 달뜨기 12:10 | 달지기 01:05

‘부처님 오신 날’ 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구름	16/25
대전	구름	16/22
대구	구름	15/24
부산	구름	14/24
제주	구름	13/24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서부	남해	남해

지수	상태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날짜	날씨	기온
23(수)	구름	17/24
24(목)	구름	12/26
25(금)	구름	14/26
26(토)	구름	15/28
27(일)	구름	16/27
28(월)	구름	16/27
29(화)	구름	15/27

금남로에서 ‘정치’를 이야기 하자

오늘까지 ‘시민의 날’ 정치페스티벌... 정책마켓 등

53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21일부터 이틀 동안 금남로 일원에서 시민 정치 페스티벌이 열린다. 21일 오후 7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어린이·학생·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광주인권현장 낭독, 광주시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광주시민대상은 사회봉사 분야 박용구, 학술 분야 윤진상, 체육 분야 백남길, 지역경제진흥 분야 한상원씨가 받았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소설가 황석영 선생이 기념식 무대에서 시민과 대화를 나눴다. 광주와 남다른 인연을 가진 작가는 이날 5·18과 광주 정신을 이야기했다.

서거탄신일인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정책마켓·시민 한마당·자일봉사박람회, 광주시민 총회가 잇따른다.

시민정책마켓은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취지로 광주시와 다른 시도에서 시행한 우수정책을 전시·설명하는 정책박람회다. 시민 한마당은 시민공연팀이 꾸미는 시민예술무대, 자치구 대항명랑운동회, 도심 속 낭만 캠프, 금남로 예술가게, 광주 맛집, 지하사가 만남의 광장 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시민총회를 거친 제안을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 교육 백년대계 아이디어 찾습니다

교육청 이달까지 정책 공모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국민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 주제는 ‘학교 민주주의 확대 방안’과 ‘광주교육 청사진’에

상 방안’이다. 광주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신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시민과 함께 찾기 위한 행사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접속해 제안내용을 담으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 심사 결과는 7월 중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380-4263. /김형호기자 khh@

새로운 농협
농업·농촌·농업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함께하는
지역경제발전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같이] 버리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해냈습니다
같이의가치 NH 동광농협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광양시의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GWANGYANG - SI COUNCIL

농민들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농협!
조합원과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농협!
행복이 있는 미래,
전남농협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남농협 조합장 선 중 송

본점 ☎061-742-6330 | 광주지점 ☎062-673-1152 | 밀마지점 ☎061-726-6330

순천만지점 ☎061-727-6330 | 나주공점 ☎061-336-8166 | 보성공점 ☎061-858-6330

전남농협연합동조합
본점 : 061-742-6330 전남 순천시 우석로 108 jnd.nonghyup.com

농지연금
망이 드리는 평생월급

가입혜택
· 소액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
· 임대료 통한 투가소득도 가능
· 6%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 연 령 :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전·답·과수원(실제 영농에 이용)

신규상품
일시인출형 연금을 받으면서 목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유형
전후후회형 생활비가 없이 드는 가입초기 없이 바로 인출 가능
경쟁이양형 은퇴 후 농지처분을 전제로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

상담문의 1577-7770 www.fbo.or.kr | www.fplove.or.kr

농협중앙회광주본부 전남농협연합동조합